



26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의 시범경기. KIA 팬들이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이날 챔스필드에는 5000여명의 관중이 입장했다.

/연합뉴스

앤더슨, 10K 삼진쇼... “최대한 많은 이닝 소화하겠다”



‘호랑이 군단’이 2023시범경기 홈 최종전을 승리로 마무리했다. KIA 타이거즈가 2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 시범경기에서 4-3 역전승을 기록했다. KIA 앤더슨과 NC 구장모가 선발로 나서면서 경기 초반은 투수전 양상이었다. 앤더슨이 시작과 함께 박민우를 4구째 스탠딩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박석민의 땅볼 타구가 3루수 김도영 맞고 튀면서 중전안타가 됐지만, 앤더슨이 박건우를 3구 삼진으로 처리했다. 박석민에게 몸에 맞는 볼을 허용한 뒤에는 윤형준을 삼진으로 잡으며 1회부터 3개의 탈삼진을 뽑아냈다. 2회에도 안중열과 한석현을 상대로 연속 탈삼진

KIA, 4-3 NC 에 역전승 시범경기 홈 최종전 승리

을 장식했지만 오태양-서호철-박민우에게 3연속 안타를 허용하며 1실점 했다. 손아섭을 좌익수 플라이로 잡고 위기에서 벗어난 앤더슨은 남은 이닝은 빠르게 정리했다. 4회 1사에서 박석민을 좌전안타로 내보냈지만 도루 저지로 세 타자만 상대했다. 4, 5, 6회는 삼자범퇴였다. 이날 성적은 6이닝(86구) 5피안타 1사구 10탈삼진 1실점. 15일 키움, 20일 LG전까지 시범경기 세 경기에서 15이닝을 소화한 앤더슨은 1.2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스피드도 만족스러웠다. 이날 86개의 공을 던진 앤더슨은 직구(47개) 최고 스피드 152km를 찍었다. 평균 구속은 148km이었다. 주무기인 슬라이더(134~139km) 24개를 던졌고, 커브(11개·128~133km), 체인지업(4개·135~140km)도 선보였다. 위력적인 투구로 기대감을 키운 앤더슨은 “3회 실점했고 경기가 타이트하게 진행됐지만, 동료들이 덕아웃에서 화이팅을 많이 해줬고 나만 길게 버티면 경기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경기까지 잘 던지지 않는 구종들을 던지면서 불넷을 조금 허용했다. 오늘은 실전 전 마지막 경기였기 때문에 불넷을 최대한 주지 않으려고 공격적으로 투구했다”며 “목표는 당연히 팀 우승이다. 내가 나가는 경기마다 팀이 이길 수 있게 도움이 되고 싶고 최대한 많은 이닝을 소화하도록 하겠

다”고 각오를 밝혔다. 구장모에 막혀있던 타선이 0-1로 뒤진 5회말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창진의 좌전안타로 만들어진 1사 1루, 한승택이 시범경기 첫 안타를 좌측 선상으로 흐르는 2루타로 장식하면서 타점을 올렸다. 6회에는 박찬호가 발로 점수를 만들었다. 박찬호가 하준영을 상대로 불넷으로 출루한 뒤 연속 도루로 성공하면서 무사 3루를 만들었다. 박찬호는 김선민의 2루 땅볼 때 홈에 들어오면서 2-1을 만들었다. 8회초 아쉬운 수비로 ‘그라운드 홈런’을 허용했다. 최지민이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나와 김주원을 상대했다. 김주원의 타구가 우중간으로 향했고, 중견수 이창진과 우익수 이우성의 콜플레이가 원활하

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두 선수가 총돌았다. 그 사이 김도영이 선두타자로 나와 좌전안타를 기록한 뒤 도루로 2루까지 향했다. 박찬호의 불넷 뒤, 대타 류지혁이 9구까지 가는 승부를 벌인 끝에 우전 적시타를 날렸다. KIA는 대타 고종욱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보태면서 4-2를 만들었다. 9회초 등판한 마무리 정해영이 2사에서 연속안타로 1실점을 했지만 김주원을 우익수 플라이로 잡고 승리를 지켰다. 한편 홈에서 진행된 마지막 시범경기에는 가장 많은 5303명이 입장해 뜨거운 야구 열기를 보여줬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클린스만 데뷔전... 완벽한 전반·아쉬운 후반

축구 대표팀, 콜롬비아와 2-2 28일 우루과이와 평가전 주목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새로운 선장이 된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부임하며 공안한 ‘공격 축구’의 예고편을 데뷔전에서 선보였으나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었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24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콜롬비아와의 평가전을 통해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데뷔전을 치러 2-2로 비겼다.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을 지휘한 파울루 벤투(포르투갈) 감독의 뒤를 이어 지휘봉을 잡게 된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첫 A매치 2연전을 앞두고는 많은 준비 기간을 갖진 못했다. 20일 첫 소집 이후 유럽파 선수들이 서서히 가세하며 경기 이틀 전인 22일야에 ‘완전체’로 훈련할 수 있었던 터라 선발로 큰 틀에선 월드컵 때의 면면이 유지됐다. 조규성(전북)을 공격 선봉에 세웠고, 손흥민이 조규성 아래에 섰다. 양 측면엔 정우영(프라이부르크)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사실상 ‘벤투호’가 이어진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 라인업이었고, 벤투호에 이어 클린스만호에서도 주장으로 신임을 얻은 손흥민의 움직임이 전반 두 골 차 리드를 만들어냈다. 손흥민은 최전방과 측면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그라운드 곳곳을 다니며 공격을 이끌었다. 조규성이 전방에서 버티주며 압박과 연계에 힘쓰는 사이 부지런히 기회를 만들며 한국이 전반을 주도하는 데 앞장섰다. 손흥민은 경기 시작 10분 만에 상대 수비의 패스 실수를 틈타 공을 잡은 뒤 페널티 아크 오른쪽에서 왼발로 감아 차 골문을 열며 클린스만호 ‘1호 골’의 주인공이 됐고, 전반 추가 시간에는 예리한 프리킥으로 한 골을 보태 문수경기장을 축제 분위기로 만들었다. ‘벤투호의 황태자’로 불렸던 황인범이 왕성한 활동량과 함께 방향을 가리지 않는 긴 패스로 활로를 여는 모습도 돋보였다. 이때 조규성을 비롯한 공격직이 쇄도와 침투를 시도하는 식으로 여러 차례 공격이 전개됐다. 대표팀은 빠른 템포 속에서도 조직력을 유지해 상대 빌드업조차 쉽지 않게 만들며 완벽한 전반전을 보냈으나 후반전을 시작하자마자 순식간에 두



24일 오후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 콜롬비아 축구 대표팀의 평가전에서 후반전 손흥민과 클린스만 감독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골을 내준 수비에 아쉬움이 남았다. 교통체증을 고려하지 않은 이동으로 늦게 경기장에 도착해 시작을 지연시키고 그라운드에선 우리 선수들과 거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 콜롬비아는 후반전 시작과 함께 오른쪽 측면을 여러 차례 두드러더니 5분 만에 균형을 이뤘다. 이후에도 실점까지 이어지진 않았으나 같은 쪽에서 거듭 수비에서 허점을 노출해 가슴을 쓸어내릴 뻔한 장면이 나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았다. 2-2 동점이 된 이후 클린스만 감독은 조규성과 ‘작은’ 정우영 대신 오현규와 이강인(마요르카), 나상호(서울), 손준호(산둥 타이산)를 교체 선수로 활용했으나 다시 앞서는 득점으로 이어지진 못해 그대로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다. 첫 경기에서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발견한 클린스만호가 28일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선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KIA 박찬호 투런 홈런...시즌 출격 ‘이상무’

KIA 타이거즈의 박찬호(사진)가 ‘이상무’를 외쳤다. 박찬호는 지난 2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시범경기에서 2-4로 뒤진 8회말 투런포를 날리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김시훈의 2구째 142km 직구를 좌중간 담장 밖으로 넘긴 박찬호는 올 시즌 시범경기 첫 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했다. 팀은 박찬호의 홈런으로 4-4 무승부를 기록했다. 박찬호의 2023시즌 정상 출격을 알리는 한방이기도 했다. 박찬호는 손목 통증으로 스프링캠프를 완주하지 못했다. 미국 애리조나 캠프에서부터 기술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결국 일본 오키나와 캠프 참가가 불발됐다. 오키나와 대신 합평에서 시즌을 준비했던 박찬호는 지난 20일 뒤늦게 시범경기 선수단에 합류했다. 그리고 25일 경기 전까지 7타석에서 속도를 얻지 못했다. 이날도 첫 타석에서는 삼진, 두 번째 타석은 불넷이었다. 그리고 이날 세 번째 타석이자 시범경기 10타석 만에 안타를 홈런으로 기록했다. 경기 끝난 뒤 “이제 안타 하나 쳤다”며 웃은 박찬호는 “결과는 신경 안 쓰고 있었다. 안 그랬으면 쫓



기고 있었을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홈런이라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만족스럽다. 박찬호는 “웨이트 효과가 나왔다. 지난해 같으면 안 넘어갔을 타구였을지도 모르겠다”며 “내일 다시 4타수 무안타 기록할 수도

도 있는데 준비는 생각만큼 잘 되고 있다. 타석에 짜임새가 생기는 느낌이다”고 만족감을 보였다. 홈런으로 타격감을 끌어올린 박찬호는 26일 경기에서는 ‘발 컨디션’도 점검했다. 2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장한 박찬호는 첫 타석에서 유격수 송구 실책으로 출루한 뒤 두 번째 타석에서는 NC 선발 구장모를 상대로 중전안타를 기록했다. 1-1로 맞선 6회 세 번째 타석에서도 불넷으로 출루한 박찬호는 2루 도루에 이어 3루까지 홈치며 NC 하준영을 흔들었다. 그리고 김선민의 2루 땅볼 때 홈에 들어와 2-1을 만들었다. 박찬호는 8회 마지막 타석에서도 불넷을 골라내 이날 4타석 모두 출루에 성공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윤영철·장현식, 퓨처스 무대에서 개막 리허설

KIA 타이거즈의 ‘아기 호랑이’ 윤영철이 퓨처스 무대에서 선발 어필 무대를 이어갔다. KIA는 26일 마산야구장에서 NC 다이노스 퓨처스팀과 연습경기를 치렀다. ‘고졸 루키’ 윤영철이 선발로 나와 5이닝을 소화했다. 사이드업 임기영과 마지막까지 5선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윤영철은 이날 6피안타 2볼넷 1탈삼진 1실점을 기록하면서 KBO리그 개막에 앞서 마지막 리허설을 끝냈다. 윤영철은 앞서 16일 키움, 21일 LG와의 시범경기에 출전 8.2이닝 4피안타 4볼넷 8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이날 51개의 직구를 던진 윤영철의 최고 구속은 137km. 평균 구속은 135km. 윤영철은 슬라이더(25개·124~129km), 체인지업(14개·121~124km)도 점검했다. 마산야구장 마운드에는 장현식도 등장했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뱃조각 제거 수술을 받았던 장현식은 윤영철에 이어 두 번째 투수로 나와 6타

자를 상대했다. 재할 후 첫 실전에 나선 장현식의 성적은 1.2이닝 2피안타 무실점. 13개의 직구를 던졌고, 최고 구속은 138km, 평균 구속은 137km를 찍었다. 변화구로는 5개의 슬라이더(120~121km)를 던졌다. 한편 이날 경기는 KIA의 12-1 대승으로 끝났다. 9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장한 윤도현이 홈런 포함 3안타 행진으로 승리의 주역이 됐다. 2회초 김선우의 좌전안타로 만들어진 2사 1루에서 윤도현이 좌중간 담장을 넘기면서 선제 투런포를 장식했다. 두 번째 타석에서 불넷을 골라낸 윤도현은 세 번째 타석에서 3루 땅볼로 물러났지만, 8·9회에 안타를 추가했다. 8회 중전안타를 만든 윤도현은 9회 마지막 타석에서는 좌중간으로 공을 보내 2루타로 3안타를 기록했다. 6번 타자 겸 포수 선발 출장한 김선우도 3루타 포함 3안타를 기록하며 활약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